

유노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

유노쓰의 온천은 약 1300 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. 한 승려가 여행을 하던 도중 이 지역을 지나다가 늙은 너구리 한 마리가 김이 나는 웅덩이 속에서 심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 온천이 치료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(794~1185)에 이미 저 멀리 교토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, 실제로 사람들이 유노쓰를 자주 찾게 된 것은 14 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로 이때부터 유노쓰는 요양지로 유명해졌습니다.

에도 시대(1603~1867)에는 인구와 소비가 증가한 은광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물자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유노쓰의 변화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여관이 만들어졌습니다. 1918 년 철도역이 개통되면서 해운업에 타격을 입고 1923 년에 이와미 은광까지 폐광되어 지역이 더욱 쇠퇴한 후에도 유노쓰의 온천은 여전히 마을을 지탱하는 큰 요소였습니다. 현재 유노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된 온천 마을로 ‘모토유’와 ‘야쿠시유’라는 두 개의 공용욕탕이 존속하고 있습니다. 그중 오랜 역사를 지닌 모토유는 2 개의 작은 욕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한 욕조에는 42 도까지 식힌 온천수가, 다른 하나의 욕조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뜨거운 46 도~47 도의 온천수가 담겨 있습니다. 욕탕 밖에는 온천수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온천수는 마실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맛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야쿠시유는 처음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추천할만한 곳으로 옥상 테라스에 올라서면 유노쓰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.